

폭설·한파에 갇혀 ‘雪·雪·雪...’

〈설·설·설〉



광주전남지방에 폭설이 내린 22일. 광주 서구 풍암동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위원들이 금당초등학교 주변 보행로에 쌓인 눈을 치우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대설주의보 속 북극 한파 남하... 토요일까지 30cm 눈 하늘길·바닷길 모두 막혀... 광주 111개 학교 등하교 시간 조정

22일 광주와 전남지역에 대설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겨울 가장 매서운 한파까지 몰아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산간 지역 도로 곳곳과 국립공원 탐방로 통제를 비롯해 도로 곳곳이 얼어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광주·전남의 항공과 여객선 운항도 통제되면서 바닷길과 하늘길도 발이 묶였다.

이번 눈은 주말인 24일까지 일부 지역에는 30cm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된다. ‘북극 한파’까지 남하하면서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와 농작물 냉해 등도 우려된다.

◇교통사고·낙상 잇따라...하늘·바닷길 통제=22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적설량(오후 4시 기준)은 담양 9.8cm를 비롯해 장흥군 유치면 8.3cm, 광주 남구 8.2cm, 광주 풍암 7.6cm, 함평군 월야면 7.1cm, 곡성군 옥곡면 5.9cm, 화순군 이양면 5.3cm 등을 기록했다. 현재 여수와 광양을 제외한 광주·전남 전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고흥, 보성, 여수, 순천, 장흥, 강진, 해남, 완도, 무안, 함평, 영광, 목포, 진도, 신안 등 전남 14개 시·군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다. 앞으로 눈은 성탄절 이튿날 24일 오전까지

강약을 반복하며 10~25cm가량 내리고, 많은 곳은 30cm 이상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시간당 3~5cm 폭설이 쏟아지는 곳도 있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제설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낮 기온이 영하의 온도를 기록하고 눈이 반복하며 내리면서 빙판길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남해안 강풍과 대설에 섬 지역 고립, 양식장 피해도 우려=많은 눈과 강풍 때문에 하늘길과 바닷길도 막혔다. 폭설과 함께 남해안에 강풍주의보와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이날 광주공항(30편)과 여수공항(6편)을 오가는 모든 여객기가 결항했고, 목포를 비롯해 여수·고흥·완도 등 4개 여객선터미널에서 28항로 28척의 여객선이 발이 묶였다. 무등산 등 국립공원 탐방로 출입도 통제된 상태다.

한파로 수온이 계속 낮아지면서 저수온 경보가 내려진 함평만 해역 등 서남해안에 밀집돼 있는 양식장의 피해도 우려된다. 갑작스러운 기온 하락은 양식 어류의 사료 섭취량과 소화력 감소, 면역력 저하로 이어져 집단 폐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1일 지속되는 한파의 영향으로 서해 연안과 내만의 수온이 낮아지거나 저수온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저수온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함평만 해역을 저수온 경보로 상향했다. 함평만 해역은 지난 18일 오전 10시를 기해 저수온주의보가 발령됐으며, 현재 수온이 섭씨 4도 이하로 3일 이상 지속됨에 따라 경보로 상향했다.

◇일부 학교 원격 수업, 등하교 시간 조정=폭설과 한파로 인해 일부 학교의 등하교 시간이 조정됐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유치원 2곳, 초등학교 5곳, 중학교 4곳, 고등학교 1곳 등 모두 12개 학교가 하교 시간을 조정했다. 이들 학교는 하교 시간을 평소보다 1~2시간 앞당겼다. 23일에도 유치원 20곳, 초등학교 45곳, 중학교 30곳 등 모두 111개 학교가 등하교 시간을 조정할 계획이다. 또 22개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전남지역 22개 학교들도 23일 폭설에 대비 등하교 시간을 1시간 이상 늦췄다.

◇24일 오전까지 많게는 30cm 눈 예보=이번 눈은 성탄절 이튿날 24일 오전까지 강약을 반복하며 10~25cm가량 내리고 많은 곳은 30cm 이상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시간당 3~5cm 폭설이 쏟아지는 곳도 있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폭설 예보가 24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 투입해 제설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22일 새벽 취약지역을 순찰하고, 주요 도로 제설상황을 점검했다.

/최권일·민현기 기자 cki@kwangju.co.kr

은화하고 의연해진 광대의 모습

조르주 루오 지상展

전남도립미술관 2023년 1월까지 전시

‘어린 피에로’

루오는 어렸을 때 변두리에 서커스 구경을 즐겨 다녔고, 어느 것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워 보였던 광대의 삶을 부러워했다. 그래서 루오에게 ‘광대’는 애정 했던 주제가 되었고 꾸준히 작품 속에서 등장했다.

루오가 그렸던 ‘광대’ 작품들은 희극적이어서 할 광대의 모습이 어둡고 쓸쓸하게 그려졌다. 이는 타인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자신의 슬픔과 상처를 감춰야만 하는 광대의 삶이자 인간 내면의 고통을 표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차 후기로 갈수록 밝고 따뜻한 색을 사용해 은화하고 의연한 광대의 모습으로 표현했다. 1945년경에 그린 ‘어린 피에로’가 대표적인 작품이다. <장미라·전남도립미술관 학예사>



‘어린 피에로’, 1945년경, 크래프트지에 유채 잉크, 과슈, 78.1X53.5cm, 풍피두센터 소장

헌재 “대통령 관저 100m 내 집회 금지 헌법 불합치”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헌법재판소 판정이 나왔다.

헌재는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의 ‘100m 집회 금지 구역’ 가운데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는 “국민이 집회를 통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표명하고자 할 때 대통령 관저 인근은 그 의견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장소”라며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은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집시법에 폭력·불법 집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최 금지 등 다양한 규제 수단이 있고 대통

령호법으로 경호구역 지정 등이 가능하다는 ‘대통령 관저 인근의 일부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수단을 통해 대통령의 헌법적 기능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막연히 폭력·불법적이거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가정만을 근거로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헌법재판의 계기는 2017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노동계 집회다. 청와대 경계로부터 68m가량 떨어져 있는 곳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1심 법원이 집시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현재로 공이 넘어왔다. 당시만 해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숙소)는 같은 공간이었기 때문에 ‘청와대로부터 100m 이내’가 과도하지만 따지면 됐지만, 현 정부에선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분리되면서 ‘관저’가 어디를 가리키는지 새로운 논쟁거리가 됐다. /연합뉴스

크리스마스 숙박비 ‘바가지 상술’에 온다 ▶6면
복스 - ‘아주 특별한 그림들의 여행’ ▶14·15면
KIA 이범호 코치 ‘선수들과 소통이 중요’ ▶18면

성탄절 휴무... 26일자 신문 쉽니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그린마을 조성, 신재생에너지 확산, 생태 복원 ...

지속 가능한 녹색 성장도시 광주 북구

광주광역시북구